

작품 내용

제 목	올리기 전, 10초의 정직
내 용	요즘 창작은 손바닥 위에서 시작된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영상을 찍고, 무료 앱으로 자막을 넣고, 몇 번의 클릭으로 음악과 글꼴을 입힌다. 생성형 AI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 좋은 일이다. 예전에는 전문가만 할 수 있던 표현이 이제는 아이도, 자영업자도, 평범한 부모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문제는 그만큼 저작권 침해도 쉬워졌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인터넷에 있길래”, “무료인 줄 알고”, “출처만 쓰면 되는 줄 알고”, “AI가 만든 거라 괜찮은 줄 알고” 올린다. 그러나 한 번 올라간 게시물은 혼자 머물지 않는다. SNS의 파급력은 빠르고 무섭다. 저작권이 침해된 영상, 사진, 음악, 글꼴은 공유와 저장, 캡처와 재업로드를 타고 산불처럼 번진다. 처음 올린 사람은 장난처럼 올렸을지 몰라도, 원작자에게는 자신의 창작물이 통제 밖으로 사라지는 일이다. 나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 살면서 예방의 무게를 자주 생각한다. 아이가 다치고 나서야 안전을 말하는 것보다, 다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게 만드는 장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몸담고 있는 건설과 개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설계도면 하나, 숫자 하나, 확인 절차 하나가 사람을 지킨다. 저작권도 다르지 않다. 저작권은 창작자를 벌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창작자를 지키고 이용자를 실수에서 보호하는 약속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올리기 전 10초 저작권 확인” 캠페인을 제안한다. 거창한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이미 바쁘고, 업로드 버튼은 너무 가깝다. 게시물을 올리기 직전, 플랫폼과 편집앱이 짧게 묻는 것이다. “이 음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 글꼴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AI로 만든 결과물에 타인의 작품, 얼굴, 목소리, 문장이 섞여 있지는 않나요?” “출처 표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확인창은 길 필요가 없다. 무섭게 몰아붙일 필요도 없다. 다만 손가락이 올라간 순간, 생각이 한 번 멈추게 해야 한다. 이 캠페인은 공익광고와 함께 가야 한다. 텔레비전, 유튜브, 학교, 지자체,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교육,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올리기 전 10초, 누군가의 몇 달을 지킵니다.” “공유는 쉽지만,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료처럼 보여도 자유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 쇼츠, 릴스, 홍보물 제작, 메뉴판·간판 디자인, AI 이미지 제작처럼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별 안내가 필요하다. 물론 확인창 하나가 모든 침해를 막을 수는 없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고, 공정이용이나 인용처럼 판단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 그래서 확인창 옆에는 바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있어야 한다. 무료·합법 음원과 이미지, 공공저작물, 이용 가능한 글꼴 안내, 쉬운 상담 창구, 짧은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겁만 주는 정책은 사람을 숨게 만들지만, 대안을 주는 정책은

	행동을 바꾼다. 저작권 교육은 어려운 법 조항을 외우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것이 소중하다면, 남이 만든 것도 소중하다는 감각을 기르는 일이다. 창작자는 자신의 이름과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는 무심코 누른 업로드 버튼 때문에 침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플랫폼은 빠른 확산의 통로인 만큼, 빠른 예방의 문도 함께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저작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저작권 침해도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다. 업로드 전 10초의 정적이 있다면, 그 불씨는 번지기 전에 꺼질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자를 위한 울타리이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표현하기 위한 약속이다.
--	--